

교회학교 학생 절반 정도만 복음에 확신

목데연 조사 결과… 교회 만족도 64%, 매주 예배 참석률 60%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중고생 가운데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에 그쳤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거나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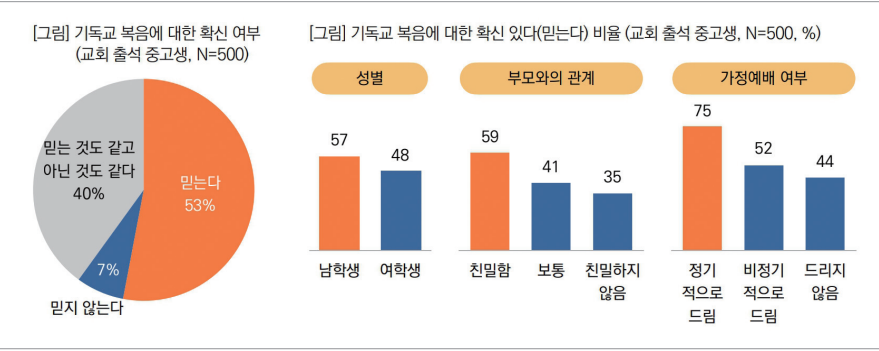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18일 발표한 '남녀 346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목데연과 사단법인 꿈이 있는미래가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진행한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조사에 기반한 것으로, 학생부모교사사역자 등 7개 집단 3,3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생 가운데 55%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다고 응답해 절반 이상이 모태 신앙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확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3%가 '믿는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7%, 여학생이 48%였으며,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학생은 59%,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학생은 7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목데연은 이에 대해 "가족 종교화가 심화되고 출산율 감소 등 다음세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재 다음세대의 신앙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부모와의 관계와 가정예배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예배 회복에서도 성인과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을 100%로 놓고 예배 참석률을 비교한 결과 성인 예배 참석률은 2024년 80% 후반대에서 2026년 5월 94%까지 회복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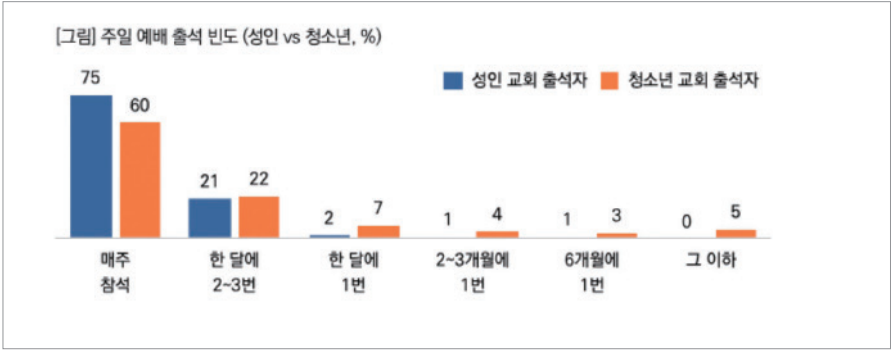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

지만, 교회학교 예배 참석률은 2024년 1월 81%에서 2026년 5월에도 81%로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주일예배 참석 빈도에서도 청소년의 출석률은 성인보다 낮았다.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 교회 출석자가 75%인 반면 청소년은 60%로 15%포인트 차이가 났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교회 참여 형태를 보면 '예배만 드

린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예배와 공과공부까지'가 30%, '예배-공과공부-다른 교회활동-친교'가 27%였다.

한편 교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교회 출석 중고생의 64%가 교회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5점 만점 평균은 3.9점이었다. 만족 이유로는 '친구'가 41%로 가장 높았고, '목사님/전도사님' 36%, '찬양' 32%가 뒤



를 이었다.

반면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교회 프로그램/활동'으로 43%였다. 이어 '목사님/전도사님'과 '설교'가 각각 27%로 나타났다. 교회학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61%로, 교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64%보다 3%포인트 낮았다.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 요인으로는 '여

름겨울 수련회'가 42%로 가장 높았으며, '찬양' 39%, '설교' 28%, '교회 친구-선후배와의 교제' 25% 순이었다.

목데연은 "청소년들의 신앙적 자극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련회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찬양 사역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자녀의 수련회 참석을 위한 부모 설득 작업도 매우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9개월 만에 900만 명 '요한복음' 다운로드… 온라인 성경 보급 급증

포켓테스타먼트리그 통계 발표, 인도 및 중동 등 종교 제한 국가에서도 다운로드 이어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 디지털 성경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넷셔널(CDI)은 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인 포켓테스타먼트리그(The Pocket Testament League)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9개월 동안 온라인 검색을 통해 9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요한복음을 다운로드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포켓테스타먼트리그의 분석 결과,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단체의 온라인 선교 사역은 7억 5000만 건 이상의 검색 엔진 결과에 노출됐다. 이를 통해 약 900만 명이 단체의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리드 캐리 셰어(Read Carry Share)'에 접속해 디지털 성경인 요한복음을 다운로드했다. 이는 매일 평균 100만 건에 달하는 수치다.

포켓테스타먼트리그는 2020년 말 해당 성경 앱을 출시한 이래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수가 3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

혔다. 특히 전체 다운로드의 약 3분의 1이 최근 9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선교 단체 측은 이러한 증가세에 대해 영적 성장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현 추세라면 향후 12개월 동안 약 10억 건의 검색 쿼리에 해당 사역이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및 중동 등 종교 제한 국가 내 기독교 디지털 성경 수요 급증

CDI는 디지털 성경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68만 건 이상의 요한복음 다운로드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며, 방글라데시가 148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 인프라가 보급되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한 수요가 온라인을 통해 활발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프라인 선교 활동이 엄격히 통제되는 종교 제한 국가와 남반구 지역에서도 기독교 디지털 성경의 보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단, 네팔, 알제리, 이란, 아프가니스탄, 예멘,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쿠바, 이라크 등지에서 유의미한 다운로드 수치가 기록됐다. 물리적인 종교 자원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 디지털 성

경이 복음 전파의 핵심 통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비드 톨럼 포켓테스타먼트리그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인터넷 검색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독교 디지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할 기회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133년 전통 포켓테스타먼트리그, 향후 3년 내 1억 명 복음 전파 목표

1893년 설립된 포켓테스타먼트리그는 초기부터 신자들이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주머니 크기의 소형 인쇄물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에 주력해 왔다. 인쇄된 성경 배포는 여전히 단체의 핵심 임무 중 하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및 온라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글로벌 선교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해당 선교 단체는 133년의 역사 동안 전 세계 약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면해 온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포켓테스타먼트리그 지도부는 인쇄된 복음서 배포와 글로벌 사역 단체들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발전된 기독교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해 향후 3년 동안 1억 명에게 추가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발표했다. 다니엘 최 기자

영화 '청년 조용기' 9월 11일 개봉 전국 극장 사전 시사회 이어져

폐결핵 시한부 선고에서 세계 선교까지
조용기 목사의 청년기 조명… 양동근·유열 참여

고(故) 조용기 목사의 청년 시절과 신앙 여정을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오는 9월 11일 개봉을 앞두고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주요 극장에서 사전 시사회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 '청년 조용기'는 폐결핵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열아홉 살 조용기가 절망 가운데 복음을 접한 뒤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이후 세계 선교에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지난 7월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시사회를 시작으로 CGV 의정부, 롯데시네마 오투 부산, CGV 오리, 롯데시네마 산본포티인, 롯데시네마 노원 등에서 잇달아 사전 상영이 진행됐다.

지역 교구와 단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도 여러 차례 편성됐다. 제작진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천 명의 성도와 관객들이 시사회장을 찾으며 개봉 전 영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열아홉 청년부터 천막교회 개척까지 조명

영화는 열아홉 살 조용기가 폐결핵

으로 삶의 위기를 맞았던 시기부터 이야기를 풀어간다.

신을 원망하던 청년이 복음을 만나 신앙적 전환을 경험하고, 이후 천막교회를 개척하며 목회와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사전 시사회에서는 조용기의 질병과 고난, 천막교회 시절의 개척 과정 등이 상영될 때 눈물을 보이거나 기도하는 관객들이 있었으며, 그의 신앙적 결단을 다룬 장면에서는 박수가 나오기도 했고 제작진은 전했다.

시사회에 참여한 관객들 사이에서는 과거 한국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열정을 돌아보게 했다는 반응과 함께 청년층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관람할 만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영화 측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사전 시사회를 통해 형성된 관객 반응이 개봉

을 앞둔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사료 활용… 양동근·유열 목소리로 참여

'청년 조용기'에는 조용기 목사의 삶을 보여주는 미공개 사료와 오디오 프록시언이 활용됐다.

20대 청년 조용기의 목소리는 배우 양동근이 맡았다. 양동근은 영화 '킹 오브 킹스' 드라마 '무빙', '오징어 게임 시즌 2' 등에 출연해왔다.

작품 전체를 이끄는 내레이터에는 가수 유열이 참여했다. 유열은 영화 '소망'과 KBS '다큐멘터리 3일' 등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도 목소리로 참여한 바 있다.

제작진은 두 사람의 목소리 연기와 내레이션을 통해 청년 조용기의 삶과 당시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화는 한 개인의 성공담보다는 삶의 한계에 직면했던 청년이 신앙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과 이후 목회 선교 사역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 사전 시사회 '청년 조용기'는 오는 9월 11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다니엘 최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에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